

臺灣·中國에서의 退溪學 研究**

丁 淳 睦*

• 目 次 •

I. 序 論	III. 중국에서의 퇴계학 연구
II. 대만에서의 퇴계학 연구	IV. 結 論

I. 序 論

퇴계의 『성학십도』가 중국에 알려진 것은 聖節使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갔던 西厓 柳成龍에 의해서이다.¹⁾ 이 때 퇴계 69세로서 易簣 한 해 전이었다.

《良齋集》에는 洪天民(1526~1594 이조판서를 지냄)이 南京에서 듣고 온 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²⁾

『중국의 문사들이 <十圖>를 읽고 중일 완색하면서 말하기를, 동국에 서도 이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의 학문은 程朱와 차이가 없다.』

홍천민은 牛溪의 문인으로서 언제 중국에 다녀왔는지는 상고할 수 없으나 『十圖』를 가지고 가서 江南士類와 교류하였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퇴계가 <十圖>를 완성한 직후의 무렵이라고 짐작된다.

* 전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작고)

** 경북대 퇴계연구소, 『한국의 철학』 제19호(1991) 게재 논문.

1) 이에 대한 것은 權五鳳, 『聖學十圖의 中國頒傳』, 《韓國의 哲學》(第17輯),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89, pp.161-172. 참조

2) 丁淳睦 편, 《退溪正傳》, 지식산업사, 1991, p.518.

舊韓이 망하자, 많은 애국지사들이 東三省(北滿)일대로 망명하였으며 孔敎 운동에 헌신하는 한편, 韓溪 李承熙, 眞菴 李炳憲, 陶庵 丁敦燮 등은 孔廟에 배알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한 논문을 曲阜·闕里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³⁾ <陶庵日記>에 의하면 이 때 도암은 『퇴계집』과 『愚潭集』을 <孔府>에 헌증하였다.

그리고 그는 尙德학교에서 <성학십도>를 製屏한 것을 가지고 일시 귀국하였다.⁴⁾ 이 때 (丁卯 1927) 陶山 宗中에서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誤謬處에 대한 정오표를 발송하였다.⁵⁾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이 퇴계학의 중국 소개에 대한 일단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중 학술교섭사의 체계가 잡히고 자료가 많이 발굴·정리될 것이므로 중국 인사들의 퇴계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은 지금보다는 더 넓어질 것이고 그 수용의 등고선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화이론적 세계관과 문명관에 투철하였던 당시의 중국학자들이 퇴계를 크게 <尊崇>하였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 점은 70년대 초까지 대만 학자들이 『退溪學』에서의 『學』자에 대한 저항을 은연중 하였다든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때의 양명학은 정신사의 흐름은 분명히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고 강렬한 문화 磁場에서 보다 미약한 곳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화인사』들이 끝까지 퇴계학을 주자 아류학으로 묶어두려는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선대 학자들은 中·日 양국에 대한 태도에서 중국은 무조건 선진시하고 일본은 까닭없이 야만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퇴계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향은 은연중 나타난다. 즉, 퇴계학의 중국 전류(傳流)는 일종의 ‘파천황의 기적’인 듯 화제로 삼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것은 퇴계학의 수준을 너무 변경

3) 丁淳睦, 『韓末志士訪曲阜和在韓孔敎運動』, 北京:《孔子誕辰 2540周年紀念學術論文集 II》, 1989.10, pp.145-148.

4) 이 병풍의 序跋의 贊詩는 지금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바대로 黎元洪(中華之所以異於夷狄 人類之所以異於禽獸)과 梁啓超(巍巍李夫子 繼開一古今 十圖傳理訣 百世詔人心 雲谷琴書潤 癡溪風月尋 聲教三百載 萬國乃同欽)가 지은 것이다.

5) 李中均, 《東田潛士遺稿》卷七, 『答中華尙德學校 中』.

적인 것으로 제한시키려는 지적 사대주의의 결과이다. 퇴계학의 수준은 그가 재세할 무렵에 벌써 세계적 정상 수준이었다. 주희가 몰한 후 3백년 동안, 중국 학술계의 연구 성과는 퇴계와 같은 제 1류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경지였으며, 당시의 사상계를 풍미하던 양명학의 학적 체계 역시 醇正철학과는 거리가 먼 선협적이고 고유한 봉건 도덕관념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의 양명학은 인간이 신비체험(靈明)으로써 알 수 있는 일종의 『공담허정』(空談虛靜)이다.⁶⁾ 퇴계의 제자인 서애가 그 곳의 태학생들에게 변론한 것 역시 『학문범주체계론』에서의 정밀성과 포괄성을 논한 웅변이었고 이것은 당시 퇴계학단이 지닌 높은 학문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퇴계학이 중국 학술계에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재유전(再流傳)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1970년 <퇴계학연구원>이 창설된 후, 10여 년의 노력 끝에 1979년 11월에 대만 사범대학 주최로 열린 『제4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를 기점으로 한다. 따라서 이 곳에서 정리코자 하는 것은 불과 12~3년의 퇴계학 연구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대만이나 중국 학자들의 학문적 『수요』에서라기 보다는 우리 측의 『권유』나 『배려』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퇴계학의 국제적인 학문적 관심이 단순히 퇴계학 연구를 비롯한 관계 인사들의 『의도적, 체계적,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적인 퇴계학 연구의 도화선이 일본·대만·중국에서 불붙기 시작하자 이제는 오히려 몰려드는 국제퇴계학 연구인원의 『정리』와 『배분』의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할 정도로 퇴계학 연구의 지평은 확대·심화되어가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퇴계학의 학문적 성격이 이 시대의 정신적 갈등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의 철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그것이 국지성을 면하려면, 국가역량에 상응하는 『宣揚作業』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세익스피어’를 위

6) 丁淳陸, 《中國書院制度》, 文音社, 1990, p.102

하여 인도라는 보고(寶庫)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자부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칸트철학이나 괴테문학을 위하여 게르만 민족의 모든 자존심을 바쳐 애호하고 선전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의 세익스피어가 될 수 있었으며, 칸트와 괴테가 될 수 있었다. 퇴계학의 국제적인 선양에 헌신하다가 타계한 春谷 李東俊 옹은 함부르크 대학에서 개최된 퇴계학 국제학술회의 석상에서 “독일이 칸트철학을 가진 것을 자랑하여 온 것처럼 이제 한국민도 퇴계철학을 지니고 있음을 세계의 사상계에 자랑하게 되었다.”고 감격적으로 말한 것이 회상된다. 퇴계학의 세계학계로의 진입은 ‘퇴계학 자체’의 학문적인 인정이 선행되었다기 보다는 이러한 ‘인정’을 가능케 한 후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었던 까닭이며 이같은 현상은 일본의 경우와 다른 나라(예컨대 이 곳에서는 대만과 중국)와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일본에서의 퇴계학연구는 거의 자생적인 계파연원을 가지고 수 삼백 년 동안 계속되어온 것으로서 이는 그들의 학문적 수요(필요)로 보아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대만이나 중국에서의 퇴계학 수입은 몇 가지 현실적 요청을 제외한다면, 불요불급한 域外の 『주자학의 한 갈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II. 대만에서의 퇴계학 연구

대만의 유학생 蔡茂松이 '58년에 성균관대학에 유학을 오고(정치학과), 계속하여 동 대학원에서 한국유학으로 전공을 바꾸면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리하여 '71년에 『退·栗 성리학의 비교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이 논문은 퇴계학에 관한 박사논문으로는 국내외로 제1호이다. 그는 返國하여 국립성공대학 역사학계 교수로 있으면서, 『퇴계 主敬과 율곡 主誠의 理學的 특색』(1979, 臺北 제4회 퇴계학 국제회의 발표논문)을 비롯하여 한국 성리학 연구로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채교수에 의하여 起端을 본 대만에서의 퇴계학 연구는 그러나 매우 적막한 것이었다. 그의 한국유학, 그 중에서도 퇴계와 율곡에 대한 관심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었으며 지도교수(柳承國 교수)의 권유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一花天下春』이라 하였듯이 채교수의 先河의인 작업은 뒤이어 전개될 대만 퇴계학 연구의 기반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는 지금도 한국유학의 연찬과 弘場사업에 정력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중이다.

채무송은 그 뒤 75년에 『朱子性情論及李退溪四端七情說研析』을 《퇴계학보》(8)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후 韓臺간의 퇴계학 교류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소개되었다가 1979년에 鄭飛石이 지은 《이퇴계小傳》이 성균관대학의 丁範鎭 교수와 대만대학의 陳祝三 교수의 共譯으로 국립대만 사범대학 내의 『퇴계학 연구회』에서 간행되었다. 한편 대만(香港)측에서는 巨儒 錢穆이 내한하여 기념강연을 하는 한편 도산서원을 참배하였으며 귀국한 뒤로 《퇴계전서》를 탐독하고 쓴 논문인 <주자학의 韓國傳播考>가 《퇴계학보》(5, 6, 11, 13호)에 4회 연재되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전목은 퇴계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이를 전후하여 내한한 孔成(공자 75대손 衍聖公·중국고시원장)이 도산서원 원장으로 行公함으로써 韓臺간의 퇴계학 교류의 단서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또 李家源, 李東俊 제씨가 訪台하여 <공맹학회>의 陳立夫와 교류하면서 대만 학술사상계의 3원로인 錢穆·孔德成·陳立夫와 퇴계학 연구원 측과의 유대는 일층 긴밀해졌던 것이다.

'79년의 <제4회 퇴계학 국제학술회의> 이전까지의 『중화민국』 학자들의 퇴계학 연구성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 蔡茂松, 『朱子性情論與李退溪四端七情說』
- 錢穆, 『현대에 있어서의 퇴계학에 대한 재인식』, 《한국의 철학》 4, 경북대 퇴계연구소, 1976. 5
- 黃錦鉉, 『주자와 퇴계의 實踐涵養에 대한 노력』, 《한국의 철학》 6, 경북대 퇴계연구소, 1977. 6

- 何佑森, 『朱子學與近世思想』, 《퇴계학보》14, 1977. 7
- 蔡茂松, 『주자학과 이퇴계』, 《퇴계학보》
- 宋 晞, 『퇴계의 理氣說에 대한 발휘』, 《퇴계학보》 19, 1978. 10.
- 杜維明(在美學者), 『이퇴계의 心性論』, 《퇴계학보》 19, 1978. 10.
- 王 甦, 『퇴계의 詩學과 詩教』, 《퇴계학보》 19, 1978. 10.7)
- 周 何, 『이퇴계의 禮學』, 《퇴계학보》 19, 1978. 10.
- 王 甦, 『퇴계詩學』(一)~(六), 《퇴계학보》 20, 21, 22, 23, 24, 25 (1978. 12~80. 3)

제4회 퇴계학 국제회의의 주제는 『近世儒學與退溪學』이었다.(’79. 11. 11~14)대회의 고문으로는 陳立夫(總統府 資政), 張其昀(중국문화대학 창설자)·孔德成(대만대 교수), 郭爲藩(대만사대 교장) 등이었고 周何 교수가 준비위원장이었다.

이 대회에서는 총 25편의 논문이 한중일 3국 학자에 의하여 발표되었는데, 대만 학자의 퇴계학 관계 논제는 다음과 같았다.⁸⁾

- 戴璉璋, 『朱子與退溪的 窮理思想』
- 王 甦(淡江大 教授), 『退溪的心學』
- 蔡茂松(成功大 教授), 『퇴계主敬與栗谷主誠의 理學特色』
- 邱變友, 『退溪詩의 理趣』
- 黃慶萱, 『退溪 栗谷 理氣說較論』

『퇴계학』의 중국 측의 『승인』(퇴계학 국제회의의 대만개최문제)은 찬반·양론 속에서 최종적으로 『승인』(곧 대회유치) 쪽으로 결론이 났다.

7) 王甦 교수(臺灣, 淡江大)의 《退溪詩學》은 李章佑 교수(영남대)의 名譯으로 1981년에 퇴계학 연구원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국판 254쪽) 1985년에는 『제1회 퇴계학술상』을 韓·日 양국 교수와 함께 수상하게 되었다.

8) 대만학자의 논문 발표는 총 12편이었으나 이상 5편만이 퇴계학 논문이고 나머지 7편은 중국유가사상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주하 교수는 3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近世儒學與退溪學國際會議論文集》, 『前記』)

첫째로, 중국의 근세유학(宋元明理學)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퇴계학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한국의 학술사상계에 끼친 이퇴계의 영향은 막중한 것으로서 그는 실로 주자학의 발양과 전개에 몰두하였다. 따라서 퇴계학의 중국 소개는 『學術統緒』의 연원적 고찰을 한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中韓 문화교류가 근래에 <중단>된 형편인데 이는 동북아 국가 간의 『문화一脈』으로 보아 다시 접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오늘의 국제정세는 더욱 이러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하 회장의 견해는 이른바 『유학 종주국』의 사정을 어느 정도 진술하게 설명하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郭爲藩師大 교장은 환영사에서 『이 곳(중화민국)에서 퇴계학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특별한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국제 학술문화의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중·일은 같은 전통적 유교국가 간의 인문사상을 갖고 현대사회의 위기와 가치淪喪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4회 퇴계학 국제회의를 전후하여 『퇴계학회』가 결성되었는데 정식 명칭은 『국립대만사범대학 국문연구소 퇴계학회』이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 문 : 陳立夫, 張其昀, 孔德成, 郭爲藩, 林 尹(대만사대 교수),
高 明(정치대 교수), 潘中規(문화학원 교수), 潘維(문화학원 원장)

회 장 : 周何

상무이사 : 李洗金(대만사대 연구소장), 羅宗壽(정치대 교수),
宗 晞(문화학원 교수), 黃金鉉(사대 교수)

이 사 : 王甦教授 외 20명

후보이사 : 林秋山 외 9명

회 원 : 張存武(중앙연구원 연구원) 외 50명

80년대 이후 대만 학자의 퇴계학 연구업적은 대략 다음과 같다.

- 王 甦, 『退溪之心學』, 臺北, 《공맹월보》 209, 1980.
- 王 甦, 『退溪早年的幾首七絶』, 臺北, 《중국문학보》 4, 1980.
- 戴璉璋, 『주자와 퇴계의 궁리사상』, 《퇴계학보》 26, 1980. 6.
- 宋 晞, 『李退溪의 史學修學』, 臺北, 《史學彙刊》 10, 1980.
- 金樂熙(한국유학생), 《李退溪與李栗谷政治思想淵源之比較研究》, 대만국립 정치대학 박사학위논문, 1980.
- 陳立夫, 『퇴계선생의 高風亮節』, 《퇴계학연구논고제요》, 퇴계학 연구원, 1981.
- 陳榮捷(在美學者), 『퇴계의 주자이해』, 《퇴계학보》 32, 1981.
- 周 何, 『이퇴계의 郡經意識』, 《퇴계학보》 32, 1981.
- 戴璉璋, 『當然之理와 實然之理』—退溪理學의 성찰, 《퇴계학보》 33, 1982.
- 謝一民, 『주렴계의 태극도설과 퇴계학』, 《퇴계학보》 34, 1982.
- 杜維明(在美學者), 『주희의 理철학에 대한 퇴계의 독창적 해석』, 《퇴계학보》 35, 1982.
- 何佑森, 『近 3백년 이래 주자학의 반대학파를 통해서 본 주자학과 퇴계학의 미래발전』, 《퇴계학보》 35, 1982.
- 王 甦, 『퇴계의 우환철학』, 《퇴계학보》 35, 1982.
- 杜維明, 『이퇴계의 지적자아 정의의 한 고찰』, 《퇴계학보》 40, 1983.
- 周 何, 『李退溪對文公家禮之運用』, 《퇴계학보》 42, 1984.
- 王 甦, 『퇴계시의 풍격』, 《퇴계학보》 42, 1984.
- 王 甦, 『퇴계선생과 梅花정신』, 《퇴계학보》 43, 1984.
- 周 何, 『論退溪之出處』, 《퇴계학보》 46, 1985.
- 王 甦, 『退溪九曲權歌析論』, 《퇴계학보》 46, 1985.
- 戴璉璋, 『理氣關係與道德實踐—퇴계실천론적 성찰』, 《퇴계학보》 47, 1985.
- 傅偉勳(在美學者), 『주자학 계승자로서의 퇴계철학의 독창성』(漢文), 《퇴계학보》 49, 1986.
- 戴璉璋, 『퇴계자성록 연구』, 《퇴계학보》 51, 1986.
- 王 甦, 『이퇴계적 心路歷程』, 《퇴계학보》 52, 1986.

- 成中英(在美學者), 『A New Interpretation of Yi Toegyies Four-Seven Theory of Mencius and Chu-Hsi』, 《퇴계학보》 52, 1986.
- 王 甦, 『퇴계의 문학관』, 《퇴계학보》
- 王 甦, 『退溪의 醉夢詩』, 《퇴계학보》 56, 1987.
- 蔡仁厚, 『李退溪辨知行合一之疏導』, 《퇴계학보》 56, 1987.

지금까지 퇴계학 연구의 논문을 발표한 학자는 약 30명 정도이고 논문의 편수는 필자의 총량으로는 총 56편으로 집계된다.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 빈도	철학	시학	주자 비교	연구 방법	예학	사학	생애	현대적 의의
(N/56)	23	10	7	5	2	3	2	4

위의 <표>에서와 같이 대만 학자의 주된 관심은 『哲·文·史』의 전통적인 학문범위이고 이것은 퇴계학을 이해하는 데 정당한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대륙중국 학자들과의 관심의 지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대만·퇴계학회>의 연구 인원은 약 50여명으로 되어 있으나 84년 이후 대륙 학자들이 참가하면서부터 퇴계학 연구의 주류는 대륙으로 넘어간 듯한 느낌이 짙다. 현재 퇴계학회는 淡江대학의 王甦 교수가 대만 지부장을 맡고 있으나 本院인 퇴계학 연구원과의 형식적인 유대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왕소 교수는 제1회 퇴계학술상을 수상하였으나 그 뒤로 대만 학자의 수상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만 학자로서 퇴계학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쌓고 있는 분으로서는 주하, 왕소, 채무송, 황금형, 대연장 교수가 있고 재미학자로서는 진영침, 두유명, 성중영 교수등이 저명한 분이다. 그간에 발표된 저술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 3종을 들 수 있겠다.

- 대만사대, 《近世儒學與退溪學》, 臺北, 학해출판사, 1979.(국판 405쪽)
- 王 甦, 《퇴계시학》(이장우 교수 역), 퇴계학 연구원, 1981.
(국판 254쪽)
- 蔡茂松, 《퇴계·율곡철학의 비교연구》, 성대출판부, 1985.
(국판 234쪽)

앞으로 兩岸 관계의 진전에 따라 대만과 중국 학자들의 퇴계학 연구의 참여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퇴계학>은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고 또 정치색을 배제한 유일한 국제학술행사이기 때문이다. '84년 臺·中 학자들이 퇴계학회 석상에서 처음 조우한 이래, 그들은 곧바로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志同道合>하며 유쾌하게 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퇴계학 연구원과 국제 퇴계학회는 지금까지 對 중국 편향의 시각에서 대만의 퇴계학회지회에 대하여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옛 친구를 소홀히 대한다면, <새 친구> 또한 우리를 미답지 못한 <붕우>로 볼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많은 대만 유학생들의 전공 영역이 『문학』 쪽으로 편중화되고 있는 현상 또한 극복되어 퇴계학을 포함한 한국유학 전공의 유학생과 그쪽에서의 한국유학 강좌 개설이 요구된다.

Ⅲ. 중국에서의 퇴계학 연구⁹⁾

<퇴계학의 배경 입성>

9) 필자와 李章佑, 申龜鉉 교수는 《중국학술기행》을 대구일보에 全紙 9회로 연재한 바 있다. (1989. 12~1990. 2) 이 곳에서는 필자가 집필한 <북경에서의 퇴계학회의>와 <중국 속의 퇴계학>을 발췌하여 실음으로써 보다 현실감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한다.

퇴계학이 북경에 상륙하는 데는 여러 곡절이 있었다. 84년 서독의 함부르크대학에서 열린 제7차 퇴계학 국제회의로부터 5년간, 洋의 동서로 교섭하기 수만리를 돌아 제11차 퇴계학 국제회의가 북경인민대학 주최로 열리게 된 것이다.

5년 전 북경인민대학의 張立文 교수가 단신으로 함부르크대회에 참석한 일은 한중학술교섭사에 새로운 기원을 갖는 일이었으며 85년 일본 筑波대학에서의 제8차 대회에서는 20여명, 이듬해 홍콩 중문대학 주최의 9차 회의에는 30여명, 그리고 88년 우리나라 정신문화 연구원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는 때마침 『올림픽기념 학술행사』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역시 20여명의 중국학자들이 내한하였다.

유학의 연원지인 중국에 『퇴계학』을 역수출하기 위하여 퇴계학 연구원의 이사장이던 春谷의 헌신적인 성력이 원동력이었으나 북경대회를 눈 앞에 두고 그 분이 長逝하였으므로 북경대회의 개막 典禮에는 만당한 동서의 학자들이 기립하여 고인의 업적을 추모하였다.

유학은 자존심이 강한 중화문화의 뼈대이고 정신적 기반이다. 콘스탄티노프리는 독일 학자가 쓴 《모택동사상비판》에 의하면, 모택동 자신이 『국제공산주의의 가면을 쓴 大漢 애국주의자이며 패권주의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지금의 등소평 시대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중화주의는 변치 않는 본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이 주자의 충실한 학도로 인정하는 퇴계를 그것도 『學』자를 붙여 가면서, 국가의 고급 당관료 양성 본산인 인민대학에서 주최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나는 이 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책임있는 학자들(黨僚學者)에게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퇴계의 학문적 수월성에 대하여 그들이 敬服하였으리라는 생각은 ‘나이브’한 것이다. 그들의 이해에 의하면 퇴계 역시 『한중관계』의 ‘고급스러운 평풍(兵兵)’이 라는 것이다. 70년대 초에 이루어진 중미관계개선은 이른바 ‘키신저 밀실외교’로 기운이 트이고 평풍으로 개막되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은 『평풍』으로 주고 받았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그러한

‘저급의 놀이’로써는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중정신문화의 공동기반인 유학이 가장 좋은 ‘놀잇감’인데, 한국 유학의 절정인 『퇴계학』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학문외교의 <놀이>가 아닌가? 더구나 그들은 북한을 의식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몇 안 되는 대만승인의 대사교환국인 마당에서도 퇴계학의 북경유치는 가능하였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도 퇴계학의 학문적 가치 자체로도 매력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1966년부터 10년간의 문화혁명 기간은 그대로 문화말살 기간이었다. 이러한 <암흑기>를 청산하려는 것이 등소평이었고 이에 그는 국제적 학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상성(紅)에 충실하면서도 전문성(專門性)을 겸비한(又紅又專)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퇴계의 『敬의 철학』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內修的인 수양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 학자들은 퇴계의 『敬』을 산업과 기술의 변증법적인 지양으로서의 실천윤리로 해석하는 것 같다. 헤겔류의 정신현상학이나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의 양면을 겸한 제 3의 변증법적 사유체제로 인정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퇴계철학 역시 모택동의 『실천론』에 들어가면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실증하고 발전시킨다』는 이론이 되는 듯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黑猫白猫論) 등소평의 실사구시정신은 퇴계학도 그들의 철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게 된다.

북경 인민대학교장(총장) 袁寶華는 개식사에서 “퇴계는 조선의 유명한 주자학 大師이고 주자학의 발전을 창도하였으며, 마침내 조선이 『禮義之邦』이 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고 하면서, 현대사회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같은 정신문화를 상호 교류시키는 일이 퇴계학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결론부분에서 주자가 육상산과의 鵝湖之會를 한 다음에 육상산 형제에게 준 시구를 인용하였다.

『옛 학문은 더욱 깊이 생각하고 (舊學商量加濬密)
새 지식은 더욱 깊게 배양하라』 (新知培養轉深沈)

회의에 참석한 중국측 학자 가운데는 蒙培元, 張立文, 辛冠潔 등이 다년간 퇴계학회에 참석한 인물이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학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에서 모인 2백여 명의 학자들에게 북경인민대학의 장립문 교수가 主編한 《퇴계서절요》라는 大著를 기증한 사실이다. 4백 수십년 전에 퇴계가 《주자서절요》를 편간하여 성리학의 진수를 전수시키고 중국과 일본유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처럼, 장교수의 《퇴계서절요》는 그 학적인 反本이며 回謝이고 한중학술사의 한 장을 劃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교수의 誠力은 과연 중국의 『月川 趙穆』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때마침 북경인민대학의 대학원 석사논문으로 周月琴의 『이퇴계 인격교육철학(장립문 교수 지도)』이 통과되었다는 소식도 반가운 일이었다.

중국 학술계에 퇴계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말의 영남 유림들이 山東省 曲阜로 가서 孔廟를 참배하기 시작하고 나서이다.

1913년에 韓溪 李承熙는 망명지인 길림성에서 북경으로 가서 당시 중국 사상계의 거두인 康有爲의 제자 陳煥章, 李文治, 薛正清 등과 회동하고 『孔教會』 지부를 東三省에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북경을 거쳐 천진, 황하를 건너 곡부에 당도하여 衍聖公 孔令怡와 少師 孔祥霖 부자의 환대를 받고 공자 사당을 참배하였다. 이 때 한계는 그 부친이 寒洲 李震相 선생의 저서《春秋樂傳》·《理學綜要》·《四禮輯要》등을 기증하였는데 이 가운데 《이학중요》은 퇴계사상이 중심내용이 되는 책이다. 그 뒤로 陶庵 丁敦燮, 西洲 金思鎭 등이 한계와 연락하면서 만주로 망명하고 곡부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眞菴 李炳憲은 전후 다섯 차례에 걸쳐 강유위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孔子敎 운동의 선구

자가 되었다.

《퇴계집》이 중국으로 들어간 내력은 도암 정돈섭이 곡부에 갈 때 그의 선조 문집인 《愚潭集》과 함께 孔府에 헌정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퇴계집》 가운데 <성학십도>가 중국인사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도암은 東亭 李炳鎬·侁宇 郭鍾錫에게 사사한 분으로 1915년에 만주로 망명하여 德興堡로 가서 한계를 찾아뵙고 곡부로 가서 알묘하였는데 이 때 지니고 간 것이 <성학십도> 등 《퇴계집》이다. 이를 본 중국의 학자들은 크게 찬탄하였으며 상덕학원에서는 1923년에 이것을 병풍으로 만들어 학교 건축비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이 병풍에 강유위의 제자이며 무술변법운동의 주동 인물인 梁啓超가 贊詩跋文을 하고 민국의 대총통이던 黎元洪이 축시를 썼다. 이러한 사실은 곧 중원천지에 환전되었고 동방퇴계의 聲價가 사해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도산서원에서는 公會를 열고 東田潛士 李中均이 지은 賀辭를 발송하는 한편 《퇴계집》을 다시 孔府와 북경대학 도서관에 발송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60년 뒤, 퇴계학이 재차 중국학계에 소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퇴계학 연구는 이제 하나의 유행이 되다시피 되었다. 문화혁명 10여 년간 학자의 대부분이 투옥되거나 下放되었으며 중국학술계의 침체는 한국·일본·대만에 비하여 20년의 낙차를 가져왔다고 자평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차츰 세계로 문을 열면서 안으로는 『공자기금회』를 설립하여 마르크스·레닌철학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중화철학의 이념을 정립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국제퇴계학회와의 유대를 다지면서 동아시아사상의 제합성(齊合性)을 고취하려고 한다.

제3회 퇴계학술상 수상자이면서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장을 지낸 辛冠潔 교수에 따르면 퇴계 철학은 주자학을 능가하는 실천윤리를 지녔으며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의 철학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의 동향>

북경인민대학 장립문 교수가 1984년 9월에 함부르크대학에서 개최된 제7차 퇴계학회의에서 『朱熹與李滉의 역학사상 비교연구』를 발표한 이래, 최근까지 발표된 중국학자의 퇴계학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 張立文, 『朱熹與李滉의 사상비교연구』, 《퇴계학보》 43, 1984. 6.
- 張立文, 『이퇴계철학적 윤리구조 深析』, 《퇴계학보》 45, 1985. 3.
- 崔龍水, 『이퇴계철학적 방법론』, 《퇴계학보》 49, 1986. 3.
- 趙宗正, 『試論퇴계학적 特點』, 《퇴계학보》 49, 1986. 3.
- 徐遠和, 『Lee Tui-Xi and his Essential Excerpts from Zhu Zis Work』, 《퇴계학보》 51, 1986. 6.
- 蒙培元, 『주자학적 演變和 이퇴계철학』, 《퇴계학보》 51, 1986. 6.
- 潘富恩, 『論李退溪의 教育觀』, 《이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筑波大 제8회 대회논문집), 동경, 東洋書房, 1986. 12.
- 楊憲邦, 『論退溪學的理學體用觀』, 《이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筑波大 제8회 대회논문집), 동경, 東洋書房, 1986. 12.
- 徐遠和, 『李退溪與朱子書節要』, 《이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筑波大 제8회 대회논문집), 동경, 東洋書房, 1986. 12.
- 李錦全, 『論李退溪의天人合一思想』, 《이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筑波大 제8회 대회논문집), 동경, 東洋書房, 1986. 12.
- 辛冠潔, 『論李退溪의心學思想』, 《이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筑波大 제8회 대회논문집), 동경, 東洋書房, 1986. 12.
- 張立文, 『이퇴계적 認識範疇系統論』, 《이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筑波大 제8회 대회논문집), 동경, 東洋書房, 1986. 12.
- 謝寶森, 『李退溪處世之道述評』, 《이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筑波大 제8회 대회논문집), 동경, 東洋書房, 1986. 12.
- 陳 來, 『論李退溪對朱熹哲學的發展開及其在理學思想的 地位』, 《이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筑波大 제8회 대회논문집), 동경, 東洋書房, 1986. 12.

- 高令印, 『이퇴계 도덕논리사상적 특색』, 《이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筑波大 제8회 대회논문집), 동경, 東洋書房, 1986. 12.
- 田博元, 『李退溪의經世思想』, 《이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筑波大 제8회 대회논문집), 동경, 東洋書房, 1986. 12.
- 丁寶蘭, 『論李退溪人性論的特色』, 《이퇴계철학의 역사적 위치》(筑波大 제8회대회논문집), 동경, 東洋書房, 1986. 12.
- 張立文, 『李退溪理動論探索』, 《퇴계학보》 54, 1987. 10.
- 辛冠潔, 『論儒家的聖人觀和李退溪爲聖之道』, 《퇴계학보》 55, 1987. 7
- 高令印, 『李退溪의心學和眞西山의心經』, 《퇴계학보》 55, 1987. 10.
- 楊憲邦, 『李退溪和朱熹性情觀的異同』, 《퇴계학보》 56, 1987. 12.
- 崔龍水, 『李滉與朱熹的方法之比較』, 《퇴계학보》 58-59, 1988. 9. (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簡博賢, 『易學象數述微』, 《퇴계학보》 58-59, 1988. 9. (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饒宗頤, 『退溪四端七情分理氣書闡義』, 《퇴계학보》 58-59, 1988. 9. (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李錦全, 『正己正人·成人成物』, 《퇴계학보》 58-59, 1988. 9. (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丁寶蘭, 『朱李之學和社會現代化』, 《퇴계학보》 58-59, 1988. 9. (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徐遠和, 『李退溪與心經』, 《퇴계학보》 58-59, 1988. 9. (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蒙培元, 『論李退溪的情感哲學』, 《퇴계학보》 58-59, 1988. 9. (제10회 퇴계학회의 발표문)
- 張立文, 『주자와 退·栗의 道心人心說批評』, 《퇴계학보》 60, 1988. 12.
- 步近智, 『퇴계학과 明代朱子』, 《퇴계학보》 60, 1988. 12.
- 蒙培元, 『이퇴계의 心性論概述』, 《퇴계학보》 62, 1989. 6.
- 徐遠和, 『이퇴계의 直覺觀에 대한 略論』, 《퇴계학보》 62, 1989. 6.

1986년 제11차 대회는 북경인민대학에서 개최됨으로써 퇴계학의 사상적인 연원지에서 張岱年 교수를 비롯하여 18명의 학자들이 퇴계학 논문을 발표하였다.

李退溪的理氣論	葛榮晉
試論李·奇四七理氣之辯	馬振鐸
李退溪理氣觀分析	崔龍水
略論李退溪의格物論	步近智
李退溪論格物致知的認識論意義	瑪增銓
李退溪關於心的闡釋學	蒙培元
退溪論士	潘富恩
退溪先生的重民思想及其歷史貢獻	喬長路
略論退溪學의形成與發展	徐遠邦
退溪學在儒學中的地位	楊憲邦
論朝鮮新儒學論理思想의特色 及其在新儒學論理思想史上的地位	李洪淳
略論朝鮮性理學與李退溪	朱七星
由閩學到退溪學	高令印
朱熹與退溪理之比較	李甦平
朱子與退溪價值觀之比較	張立文
儒家人生哲學簡論	方立天
論儒學現代轉化的必要性和可能性	樓宇烈
儒學與現代化	張岱年

1990년 모스크바(과학원)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는 신관결 교수를 비롯하여 장립문, 몽배원, 누우열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조선족 학자 李洪淳, 黃有福 교수 역시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중국 학자의 퇴계학 연구 논문은 총 55편이고 그 잠정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철학 일반	비 교	연구 방법	논 리	교 육	사 회	현대 의의	기 타
23	14	4	2	2	2	2	6

① 대만의 문학(10), 예학(2), 생애(2), 사학(3)이 빠지고 그 대신 논리, 교육, 사회 방면이 추가되었다.

② 비교연구는 대만이 주로 주자 비교인데 비하여 중국에서는 보다 폭넓은 성리학 일반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국 학자들의 퇴계학 연구에 대한 열의는 『퇴계학술상』의 시상제도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상금(본상 1만 달러, 학술상 5천 달러)의 규모 면으로 보면 중국학자의 수년간의 연봉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 유인책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¹⁰⁾ 지금까지 4회의 시상을 거치는 동안 총 13명의 수상자 가운데 중국 학자가 5명이고 대만 학자가 1명이다.

IV. 結 論

중국 학자들은 『퇴계학』의 사회과학적 관심을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첫째로, 퇴계학과 같은 유교적 자본주의 관념철학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문제.

둘째로, 퇴계의 『敬의 철학』이 어떻게 하는 자본주의 퇴폐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10) 역대퇴계학술상 수상자(* 표는 중국계 학자)

'85년 제1회 丁淳睦(韓)·高橋 進(日)·王甦(臺灣)*

'87년 제2회 全斗河(韓)·張立文(中)*·M.Kalton(美)

'89년 제3회 劉明鍾(韓)·辛冠潔(中)*·蒙培元(中)

'91년 제4회 尹絲淳(韓)·權五鳳(韓)·步近智(中)*·高令印(中)*

셋째로, 중국의 현대유학의 부흥과 퇴계학의 연계로 새로운 시대철학으로서의 적합성 문제

이상과 같은 <문제>는 실상 그들이 퇴계학을 과대평가 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나치게 높게 인정한 결과인지 모른다. 실지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퇴계학이 기여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 유교도덕주의와 유교자본주의 어느 면에서고 성공한 나라가 못된다. 그러나 우리가 퇴계학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세계의 지성과 더불어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고 하여 퇴계학이 이 시대의 『구원의 철학』이라거나 인류를 대표하는 예지의 샘이라고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 5백여 년 전에 동방의 한 시골에서 70년간 참 사람됨의 길을 걷고 또 참 앎의 길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성실성이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 주는 소박한 ‘메세지’이고 이것을 우리는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의 퇴계학 연구의 기반은 상당할 정도로 조성되었다. 중국에서의 《퇴계서절요》(총론/정치론/심성론/이기론/윤리론/교육론)의 보급은 더 많은 연구 인원을 배출할 것이며 《白話文退·퇴계전서》가 四川대학의 賈順先 교수의 주도로 완결단계에 있으므로 대학생을 위시한 많은 청년퇴계학도의 출현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국제퇴계학회 중국지부의 결성·유학생의 교류·중국학회와의 교류(특히 공자기금회, 주자학회, 주희연구중심 등) 등의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최근 李秀雄 교수(건국대)의 《朱熹與李退溪詩比較研究》라는 저서가 북경대학 출판부에서 출간(91. 2)되었는데, 이 또한 퇴계학 학술교류에 기억될 만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